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명 회¹⁾

충북대학교 유아교육전공

한 세 영²⁾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12-48개월 영유아의 어머니 209명으로 구성되었고,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F-test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은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취업모의 과보호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비취업모가 느끼는 양육죄책감은 취업모에 비해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주요어 : 어머니 취업, 격리불안, 양육죄책감, 양육행동

* “이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충북대학교 유아교육전공, 석사

2) 교신저자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Email : evenhow@chungbuk.ac.kr)

I. 서론

여성이 사회와 직장으로 진출하게 되면, 어머니가 일하는 시간동안 자녀양육은 가족구성원과 어린이집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의 역할은 유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가 자녀에게 어떠한 양육행동을 하는가가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취업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학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취업모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여 자녀에게 더 애정적, 수용적, 외향적이었다는 연구(우대식, 1992; 이은수, 1985)가 있는 반면, 취업모가 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여 자녀에게 더 온정적이었다는 연구(김영미, 2007)도 있다. 한편 장인숙(2001)은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양육행동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육행동간의 관계에 대해 비밀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비밀관성은 여러 연구들이 양육행동을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양육행동에 대한 모형 중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애정-적대, 자율-통제의 2차원으로 분류한 Schaefer(1969)의 모형이지만, 국내연구에서도 대체로 애정, 자율, 수용, 온정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과 적대, 통제, 거부와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박영애, 1995; 오성심, 이종승, 1982; 이숙, 1988).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양육행동과의 상관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취업과

비취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또는 결여될 수 있는 양육행동의 하위차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취업으로 인한 가장 큰 특징은 자녀와의 분리이며, 이에 비해 비취업모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므로, 이로 인해 어머니가 가질 심리적 배경이 반영된 양육행동의 차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녀와 격리된 시간이 많은 취업모가 이로 인한 불안과 보상심리로 인해 유아를 과보호하지는 않는지,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고 양육스트레스가 클 비취업모가 자녀를 더 많이 통제하거나 반응을 적게 하지는 않는지 등의 측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이미정, 1998; Park, Belsky, Putnam, & Crnic, 1997)에 기초하여 양육행동을 과보호적, 통제적, 거부적, 반응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하였다.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독립적인 행동을 막고 의존성을 조장하는 행동으로 아동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양육자의 기준에 맞추도록 제한, 간섭, 지시하는 태도이다. 거부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자녀를 비난하며 귀찮아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반응적 양육행동은 자녀가 나타내는 신호를 잘 지각하여 정확히 해석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영향요인에는 상황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어머니의 상황적 특성에는 어머니의 취업유무,

직종, 근무시간의 융통성, 취업동기 등 다차원적인 요소가 포함되며(임미리, 1997), 심리적 특성으로는 양육스트레스(손영지, 박성연, 2011), 격리불안(김미경, 2007)과 양육죄책감(장인숙, 2001)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어머니의 격리불안은 자녀와 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을 반영하는 불유쾌한 감정 상태로 정의된다. 어머니가 표현하는 격리불안은 자녀와 떨어질 때 느끼는 슬픔(sadness), 걱정(worry), 불편함(uneasiness) 등의 감정을 모두 포함하며, 이런 정의는 격리사건과 관련되어진 불안의 일시적인 상태라고 지적한다(Hock, Gnezda, & McBride, 1989).

Bowlby(1969)의 동물행동학적 이론은 어머니와 아동의 격리불안을 이해하는데 기초를 제공한다. 어머니-영아 애착관계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상받으려는 본능적 반응으로 아동과의 거리를 줄이고 밀접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려는 행동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격리불안은 아동에게 안전성, 신체적 밀접함을 통한 보호, 그리고 안락감을 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방해 받음으로써 생겨나게 된다. 또한 어머니와 아동이 격리는 어머니-아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표현되는 친밀감을 방해하고, 주변세계에 대한 아동의 탐색과 발견을 조장하는 어머니의 능력을 감소시킨다(조복희, 박성옥, 1992).

자녀와 분리될 때 어머니가 느끼는 어느 정도의 불안이나 걱정은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이지만 불안의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자녀와의 관계형성과 이후 발달에 부정적이 영향을 줄 수 있

다(안지영, 도현심, 1998). 어머니의 높은 수준의 격리불안은 자녀의 개별화과정을 방해하고, 자기 자신을 한 개인의 독립된 사람으로 보기 보다는 자녀와 항상 함께 해야만 하는 관계로 발달되기 쉽다고 하였다(Benedek, 1970). Peleg, Halaby와 Whaby(2006)에 의하면, 어머니의 격리불안은 유아의 격리불안과 상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유아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정적인 결과까지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 양육행동에 대한 문제를 어머니의 격리불안 안에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미경(2007), 소연주(200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격리불안이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격리불안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아이를 연령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도와줌으로써 아동의 독립성을 방해하는 아기취급 행동을 보였다고 하였다. 김영호(2004)는 격리불안이 높을수록 성취적 양육행동이 낮아진다고 하였고, 유현숙(2006)은 격리불안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온정격려, 한계설정, 과보호허용, 거부방임 정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취업모가 격리불안을 더 느낀다고 한 연구(김미경, 2007; 박성옥, 1993; 장인숙, 2001)도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연구(김은형, 1995; 김정아, 2008)도 있다. 또한 장인숙(2001)의 연구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각각의 격리불안이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격리불안이 높은 취업모일수록 자녀에게 통제적 양육행동을 한다고 하였고, 비취업모의 경우는 비합리적 성향이 있는

양육태도를 가진다고 하여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격리불안과 양육행동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양육행동이 어머니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양육행동과 맞지 않을 경우 유발되는 감정이며, 양육죄책감 역시 긴장, 후회 신경질, 양심의 가책, 늘 함께 있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 등을 일으킨다(이병윤, 1990). 일반적으로 여성이 갖는 죄책감은 남성이 갖는 죄책감보다 크다(Hoffman, 2000; Kochanska, Gross, Lin, & Nichols, 2002; Korabik & McElwain, 2005; Preston & de Waal, 2002; Silfver & Helkama, 2007)고 보고한 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아버지보다 클 것이며, 이러한 양육죄책감은 어머니 자신의 모성본능이나 어머니가 양육에 양질의 투자를 할 것을 기대하는 문화로부터 발생했다고(Rotkirch, 2009) 여겨진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죄책감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처해있는 상황과 사회적 특성 및 심리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성정원, 박성연, 2011).

비취업모의 가사일과 자녀양육 문제는 생활의 단조로움과 24시간 자녀와 접촉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비취업모에게 더 많은 심리적 갈등과 부담을 야기한다(고성혜, 1994). 이러한 심리적 갈등과 부담은 비취업모에게 자신의 기분에 따라 양육하는 비일관적인 태도를 가져온다(이인숙, 1994). 비취업모가 질적 양육을 못할 때와 부부싸움을 할 때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정태연과

노현정(2003)의 연구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비취업모 역시 양육죄책감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게 해준다.

반면 취업모는 자신의 아동을 타인에게 맡겨야 하기 때문에 아동을 맡기는 데서 오는 죄책감과 어머니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어머니로서 죄책감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Mann & Thornberg, 1987). 함께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특히 아이가 아플 때 취업모의 죄책감은 더 크다(정태연, 노현정, 2005). 양육죄책감을 느끼는 취업모의 경우 때로는 자녀에게 과잉보상하게 되는데 이는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과잉보상은 자녀를 소극적으로 만들며 또래들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갖지 못하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신민호, 1996). 즉, 양육죄책감이 부정적 양육행동을 일으킨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 두 변인이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장인숙(2001)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죄책감이 높은 취업모일수록 자녀에게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반면 양육죄책감이 높은 비취업모의 경우는 더욱 적대적이고 비합리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영숙(2007)은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타인양육 죄책감, 돌봄 죄책감, 부모역할 죄책감 중 타인양육 죄책감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돌봄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더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정아(2008)의 연구에 따르면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양육죄책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죄책감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진 한편, 최근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인 요인들 간에 상호작용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김미경, 2007; 김정아, 2008).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를 명확히 알기 위해 어머니의 심리적인 요인 중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기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드물며, 이를 취업모와 비취업모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 또한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의 영향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위해서는 양육지식의 습득 뿐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을 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릴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위한 부모교육현장에 유용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양육행동(과보호, 통제, 거부, 반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더불어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 각각의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상호작용 효과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1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2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3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거부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4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반응성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충북에 소재하고 있는 10개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그곳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고 유아의 월령은 12개월에서 48개월 사이이며, 평균 월령은 35개월이었다. 남아가 115명(55%), 여아가 94명(45%)이며, 첫째가 97명(46.4%), 둘째가 89명(42.6%), 셋째 이상이 23명(11%)였다. 자료는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수집하였으며 각 어

린이집을 통해 가정으로 배부한 질문지를 유아의 어머니가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제출한 것을 연구자가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조사는 2010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 실시되었다. 총 293부의 질문지가 배부되고 221부가 수거되었으나, 질문지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하였거나 분석에 부적합한 자료 1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9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35세 이하가 155명(74.2%), 36세 이상이 54명(25.8%)였고, 아버지의 연령은 36세 이상이 98명(46.9%), 35세 이하가 111명(53.1%)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120명(57.4%), 대졸이상이 89명(42.6%)이며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98명(46.9%), 대졸이상이 111명(53.1%)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유무를 살펴보면, 비취업모가 116명(55.5%)였고, 취업모는 93명(44.5%)였다. 가족수입은 월 150만원 미만인 14명(6.7%), 150만-250만원이 72명(34.4%), 250만-350만원이 64명(30.6%), 350만-450만원이 37명(17.7%)이었으며 450만원 이상이 22명(10.5%)였다.

2. 측정도구

격리불안

본 연구에서는 Hock(1976, 1980)이 개발한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를 조복희와 박성옥(1992)이 우리 문화에 맞는 영유아용 측정도구로 새로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는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하위영역중 '일반적 어머니의 격리불안'에 해당

되는 13문항만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분포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격리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양육죄책감

본 연구에서는 양육죄책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의 척도와 Mann과 Thornberg(1987)가 개발한 '탁아에 대한 죄책감', '부모역할에 대한 죄책감'의 척도를 장인숙(2001)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본래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용상 부적절한 두 문항을 제외하고는 17문항 중 적합한 15문항만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분포된다. 높은 점수의 의미는 어머니가 양육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정도이다. Cronbach's α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둔 어머니들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4가지 범주의 양육행동(거부, 통제, 과보호, 반응성)을 포함한 Park과 동료들(1997)의 도구를 이미정(1998)이 번안한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분포된다. 높은 점수의 의미 중 하위변인인 거부는 어머니가 자녀에서 거부적이고 비난하며 귀찮아하는 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통제는 어머니가 자녀의 능력에 관계없이 양육자의 기준에 맞추도록 제한하고 간섭하며 지시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과보호는 어머니가 자녀의 독립적인 행동을 막고 의존성을 조장하며, 자녀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뒷바라지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반응성은 어머니가 자녀의 신호를 잘 지각하여 정확하게 해석하고, 즉각적이면서 적절한 반응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73(거부), .82(통제), .77(과보호), .71(반응성)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이용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 양육죄책감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표 1과 같다.

표 1.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 양육죄책감 및 양육행동

변인	비취업모 (N=116)	취업모 (N=93)
	M(SD)	M(SD)
격리불안	2.36(.45)	2.44(.45)
양육죄책감	2.48(.45)	2.65(.49)
양육 행동	과보호	2.60(.47)
	통제	2.40(.41)
	거부	2.01(.42)
	반응성	2.83(.39)

1.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 및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수는 예측된 방향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각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는 .11에서 .58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서 분산팽창계수인 VIF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값이 2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어머니의 과보호-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과보호-양육행동과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델 1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을 통제하였고, 모델 2에서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의 영향을 살

표 2. 어머니의 격리불안,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의 상관관계

변 인	1.	2.	양육행동			
			3.	4.	5	6
1. 격리불안						
2. 양육죄책감	.58**					
양육 행동	3. 과보호	.46**	.45**			
	4. 통제	.33**	.46**	.43**		
	5. 거부	.11**	.29**	.12	.43**	
	6. 반응성	.12**	-.03	.14	-.07	-.39**
평 균	2.39	2.55	2.62	2.39	2.01	2.83
표준편차	.45	.47	.54	.47	.45	.37

* $p < .05$, ** $p < .01$

표 3.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어머니의 과보호-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표준화된 β (전체)			표준화된 β (비취업모)			표준화된 β (취업모)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연령	-.14*	-.05	-.06	-.12	-.02	-.02	-.15	-.09	-.10
교육수준	-.21*	-.16**	-.16**	-.24*	-.18*	-.18*	-.21*	-.13	-.12
격리불안		.30***	.30***		.25*	.25*		.37***	.37***
양육죄책감		.25***	.25***		.29**	.29**		.21*	.21*
격리불안×양육죄책감			-.06			-.01			-.17*
R^2	.06	.29	.30	.07	.29	.29	.06	.32	.35
F	6.68**	20.98***	17.04***	4.41	11.1***	8.80***	2.95	10.30***	9.33***

* $p < .05$ ** $p < .01$ *** $p < .001$

펴보았고, 모델 3에서는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전체어머니집단을 분석했을 때는 어머니의 교육수준, 격리불안, 양육죄책감이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모델 2에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어머니의 격리불안($\beta = .30$, $p < .001$)과 어머니의 양육죄책감($\beta = .25$,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대한 이 요인들의 설명력은 29%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의 상호작용을 추가한 모델 3에서 어머니의 격리불안($\beta=.25, p<.05$)과 어머니의 양육죄책감($\beta=.294, p<.01$)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취업모의 경우 모델 2에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어머니의 격리불안($\beta=.37, p<.01$)과 어머니의 양육죄책감($\beta=.21,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대한 이 요인들의 설명력은 32%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의 상호작용을 추가한 모델 3에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어머니의 격리불안($\beta=.37, p<.001$), 어머니의 양육죄책감($\beta=.21, p<.05$),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beta=.17, p<.05$)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이 모델의 요인은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35%로 설명해주고 있으며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요인에 의해 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을 살펴보면, 양육죄책감이 낮은 경우 격리불안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훨씬 더 큰 과보호 양육행동을 보였으나, 양육죄책감이 높은 경우 격리불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어머니의 통제-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통제-양육행동과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어머니집단에서는 어머니의 격리불안만이 통제적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취업모와 취업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모델 2에서 어머니의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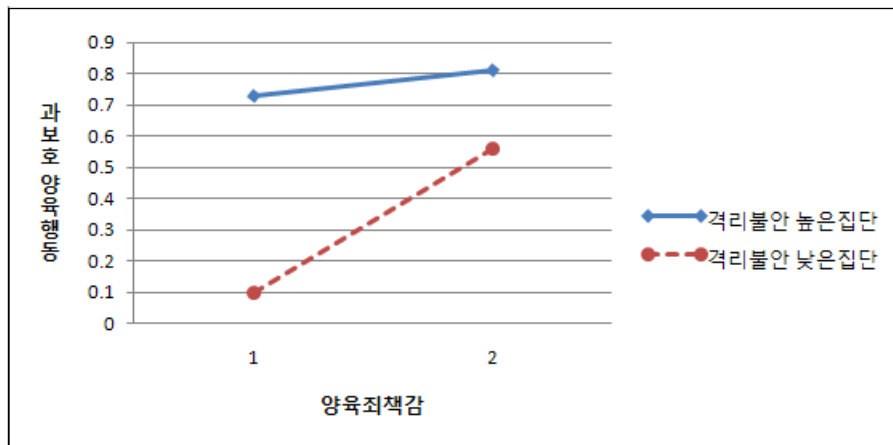


그림 1. 취업모의 과보호-양육행동에 대한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의 상호작용효과

표 4.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어머니의 통제-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표준화된 β (전체)			표준화된 β (비취업모)			표준화된 β (취업모)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연령	-.11	-.01	-.02	-.13	-.02	-.03	-.09	.01	-.01
교육수준	-.05	.01	.01	-.06	.01	.02	-.02	.04	.05
격리불안		.09	.10		.09	.09		.09	.09
양육죄책감		.49***	.41***		.42***	.42***		.44***	.44***
격리불안×양육죄책감			-.08			-.12			-.05
R^2	.01	.22	.23	.02	.23	.25	.01	.24	.24
F	1.48	14.43***	11.95***	1.14	8.39***	7.20***	.38	7.03***	5.63***

* $p<.05$ ** $p<.01$ *** $p<.001$

적 양육행동에 어머니의 양육죄책감($\beta=.41$,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요인들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22% 설명해주고 있다.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의 상호작용을 추가한 모델 3에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어머니의 격리불안,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모델의 요인들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23% 설명해주고 있다.

취업모의 경우 모델 2에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어머니의 양육죄책감($\beta=.44$,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의 요인들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24% 설명해주고 있다.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의 상호작용을 추가한 모델 3에서도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어머니의 양육죄책감($\beta=.44$, $p<.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의 요인들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24% 설명해주고 있다.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어머니의 거부-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거부-양육행동과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어머니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비취업모의 경우 모델 2에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 어머니의 양육죄책감($\beta=.45$, $p<.001$)과 격리불안($\beta=.22$,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을 18% 설명해 주고 있다.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의 상호작용을 추가한 모델 3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죄책감($\beta=.45$, $p<.001$)과 격리불안($\beta=.22$, $p<.05$)이 유

표 5.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어머니의 거부-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표준화된 β (전체)			표준화된 β (비취업모)			표준화된 β (취업모)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연령	-.08	-.01	-.01	-.13	-.04	-.04	-.03	.02	.01
교육수준	.10	.13	.13	.15	.22*	.22*	.06	.08	.10
격리불안		-.08	-.08		-.11	-.11		-.08	-.07
양육죄책감		.35***	.35***		.45***	.45***		.26*	.27*
격리불안×양육죄책감			-.01			.07			-.20
R^2	.02	.11	.11	.04	.18	.18	.01	.05	.10
F	1.68	6.00***	4.78***	2.22	6.03***	4.93***	.23	1.39	1.85

* $p<.05$ ** $p<.01$ *** $p<.001$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을 18% 설명해 주었다.

취업모의 경우 모델 2에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 어머니의 양육죄책감($\beta=.26$,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요인들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을 5% 설명해주고 있다.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의 상호작용을 추가한 모델 3에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 어머니의 양육죄책감($\beta=.27$,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요인들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을 10% 설명해 주고 있다.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어머니의 반응성-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반응성-양육행동과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 어머니 집단에서는 어머

니의 격리불안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취업모집단에서 보인 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비취업모의 경우 모델 2에서 어머니의 반응성 양육태도에 어머니의 격리불안($\beta=.29$,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요인들은 어머니의 반응성 양육행동을 8%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어머니의 격리불안이 높고 어머니의 반응성 양육행동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의 상호작용을 추가한 모델 3에서도 어머니의 격리불안($\beta=.29$, $p<.05$)이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요인들은 어머니의 반응성 양육행동을 8% 설명해 주었다.

취업모의 경우 모델 2에서 어머니의 반응성 양육행동에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이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모델 3에서 상호작용효과를 투입하지 않았다.

표 6.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어머니의 반응성-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표준화된 β (전체)			표준화된 β (비취업모)			표준화된 β (취업모)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연령	.11	.10	.11	.16	.15	.15	.06	.06
교육수준	.02	.02	.02	.04	.01	.01	-.01	.01
격리불안		.20*	.20*		.29*	.29*		.11
양육죄책감		-.13	-.13		-.21 ⁺	-.21 ⁺		-.02
격리불안×양육죄책감			.03			.01		
R^2	.01	.04	.04	.03	.08	.08	.01	.01
F	1.37	2.14	1.75	1.66	2.50*	1.99	.18	.30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반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 양육죄책감, 양육행동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상담현장과 부모 교육현장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과보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비취업모는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으로 나타났고, 취업모는 격리불안, 양육죄책감,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의 상호작용 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격리불안이 높을수록 과보호적 양육

행동을 한다는 김미경(2007), 소언주(2001)의 연구와 일치하며, 취업모가 비취업모 보다 양육죄책감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 인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정아(2008)의 연구와 부분일치 하는 결과이다. 비취업모는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어머니의 과보호양육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나타냈으나, 취업모의 경우 2단계에서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의 상호작용이 투입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격리불안은 영향력이 증가한 반면, 양육죄책감은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취업모와 취업모 모두 자녀와의 격리상태에서 오는 어머니의 불안과 자녀를 직접 또는 잘 돌보지 못한다는 오는 심리적 죄책감이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양육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사료된다. 특히 취업모의 경우 2단계에서 어머니가 격리불안이 높을 경우 양육죄책감이 낮더라도 격리불안이 낮은 경우보다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불러오는 요인이 양육죄책감이기 보다는 자녀와 떨어져있는 격리불안이 어머니가 과보호양육행동을 하는데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의 격리불안은 유아의 격리불안으로 이어져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불리하다는 선행연구결과(Peleg et al., 2006)를 고려할 때, 어머니의 격리불안이 과보호라는 형태로 표현되어 유아의 격리불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않을지 후속연구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만이 통제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거부적 양육행동에서도 마찬가지였으나 거부적 양육행동에서는 양육죄책감의 영향이 비취업모에게서 크게 나타났다. 즉 비취업모가 양육죄책감을 느낄수록 부정적 양육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죄책감이 높은 비취업모가 자녀에게 통제적 양육행동을 나타낸다는 장인숙(2001)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며, 여러 가지 어머니 관련 변인 중 양육죄책감이 양육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박희진과 문혁준(2012)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어머니가 죄책감이라는 심리적인 갈등을 경험할 경우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게 되어 통제적 양육행동과 거부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며, 이러한 성향이 비취업모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자신만의 생활영역인 직업을 가진 어머니보다 자신만의 영역을 갖지 않은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죄책감이라는 심리적 갈등으로부터 더 취약함을 알려준다.

셋째,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반응성 양

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비취업모에게만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는 유아와 격리된 경험이 취업모 보다 부족해 한번 격리불안을 느끼면 유아에게 미치는 피해가 클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클 것이며, 따라서 유아의 신호에 즉각 반응하는 경향이 커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양육죄책감은 어머니의 반응적인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만 미친다. 이는 격리불안의 긍정적인 효과와는 대조되는 것으로, 격리불안이 어머니에게 긴장감을 주어 유아에게 반응을 잘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양육죄책감은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효과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모가 비취업모 보다 양육죄책감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표 1 참조), 양육죄책감이 반응적인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비취업모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즉 비취업모가 느끼는 양육죄책감은 양육행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비취업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양육죄책감의 영향력과 설명력이 취업모보다 훨씬 크다. 즉, 비취업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원인으로 양육죄책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반면 취업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에는 양육죄책감 외에 다른 요소가 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비취업모의 양육죄책감은 부정적 양육행동에 크게 작용한다. 비취업모는 취업모보다 양육죄책감에 취약하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경감을 위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시

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취업모와 비취업모에게 다르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의 영향도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상호작용하여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다르게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취업모가 느끼는 양육죄책감은 취업모에 비해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본 연구결과는 부모교육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라는 심리적인 변인들의 상호작용 관계를 설명했는데 의미가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변인에 따라 다각적으로 탐색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기 대상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대상유아의 월령이 다양하며, 1세 미만의 영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격리불안은 영아가 어릴수록 더욱 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과를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확장해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상유아의 월령의 폭이 넓어 양육죄책감이나 격리불안이 가지는 의미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월령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오늘날 많은 취업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취업 유무라는 맥락만을 적용한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추후에는 취업근무의 형태나 근무 만족도 등의 다양한 취업의 형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성혜 (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6, 21-37.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미경 (2007).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호 (2004). 취업모의 양육죄책감 경감을 위한 어머니 역할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형 (1995). 어머니의 역할관과 역할갈등이 어머니의 격리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아 (2008).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현정 (2003). 취업모와 비취업모간의 양육죄책

- 감과 양육행동의 차이.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옥 (1993).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격리불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희진, 문혁준 (2012).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2), 121-137.
- 백영숙 (2007).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정원, 박성연 (2011).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자녀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1(2), 123-145.
- 소언주 (2001).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특성, 아동초기 기질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영지, 박성연 (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 성격의 중재효과. 인간발달연구, 18(2), 125-144.
- 신민호 (1996). 유아모의 전공 및 직업유무와 양육태도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지영, 도현심 (1998). 자녀양육, 아동 낮가림 경험 및 분리불안과 어머니의 분리불안. 대한가정학회지, 36(8), 13-20.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연구노트, 11(1), 서울: 행동과학연구소.
- 우대식 (1992).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현숙 (2006).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태도 및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정 (1998). 3세 여아의 행동억제와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병운 (1990). 정신의학사전. 서울: 일조각.
- 이숙 (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수 (1985). 취업모의 인성특성과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인숙 (1994). 도시 전업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미리 (1997). 취업모의 직업관련 특성, 타아기관의 질 및 심리적 안정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인숙 (2001).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 격리불안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태연, 노현정 (2005).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의 차이. 한국

- 심리학회지: 여성, 10(2), 211-231.
- 조복희, 박성옥 (1992). 어머니의 격리불안 척도의 개발. *한국아동학회지*, 13(1), 16-37.
- Benedek, T. (1970). Motherhood and nurturing. In E. J. Anthony & T. Benedek(Eds.), *Parenthood: Its psychology and psychopathology*. (pp.153-166) Boston: Little, Brown.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London: Gogarth.
- Hock, E. (1976). *Alternative approaches to child rearing and their effects on the mother infant relations*. Urbana, IL: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Early childhood education (ED 122943).
- Hock, E. (1980).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and their infants: A comparative study of maternal caregiving characteristics and infant social behavior. *Merrill Palmer Quarterly*, 26, 80-101.
- Hock, E., Gnezda, T., & McBride, S. (1989). Maternal separation anxiety: Mother-infant separation from the matern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0, 793-802.
- Hoffman, M.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chanska, G., Gross, J. N., Lin, M., & Nichols, K. E. (2002). Guilt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 determinants, and relations with a broader system of standards. *Child Development*, 73, 461-482.
- Korabik, K., & McElwain, A. K. (2005). Work-family guilt. In E. Kossek and M. PittCatsouphes(Eds.), *Work and family encyclopedia*. Chestnut Hill, MA; Sloan work and family research network.
- Mann, M. B., & Thornbe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 Park, S. Y., Belsky, J., Putnam S., & Crinic, K. (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18-227.
- Peleg, O., Halaby, E., & Whaby, E. (2006).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nd differentiation of self to children's separation anxiety and adjustment to kindergarten: A study in Druze familie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 973-995.
- Preston, S. D., & de Waal, F. B. M. (2002). Empathy: Its ultimate and proximate bas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58, 572-583.
- Rotkirch, A. (2009). Maternal guilt. *Evolutionary Psychology*, 8, 90-106.
- Schaefer, E. S. (1969). A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42
- Silfver, M. M. & Helkama, K. (2007). Empathy, guilt, and gender: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guilt.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8, 239-246.

1 차원고접수 : 2012. 10. 16.

수정원고접수 : 2012. 11. 22.

최종게재결정 : 2012. 12. 4.

The Effects of Mother's Separation Anxiety and Parenting Guilt Feelings on Parenting Behavior among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Kim, Myoung-Hoe

Han, Sae-Young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other's separation anxiety and parenting guilt feelings upon parenting behaviors among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mprised 209 mothers of 12 to 48 month old children who were attending kindergartens located in Chungbuk. The data thus collected were analyzed by means of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α ,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12.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separation anxiety and parenting guilt feeling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parenting behavior among both nonworking and working mothers. Second, the interaction effects of separation anxiety and parenting guilt feelings were significant on working mothers' over-protective parenting behavior. It is noteworthy that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guilt feelings on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was stronger among nonworking mothers than working mothers, which implies that the effect of mother's psychological factors on their parenting behavior may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employment status.

Key words : Separation Anxiety, Parenting Guilt Feeling, Parenting Behavior, Working Mothers